

8세기 신라의 대발해(對渤海) 인식 변화와 그 배경: 북적(北狄)에서 북국(北國)으로

김진한

경북대학교 사학과 강사, 한국고대사 전공

historian77@hanmail.net

- I. 머리말
 - II. 대발해 번국인식(藩國認識)의 형성
 - III. 대발해 인국인식(隣國認識)의 등장
 - IV. 맺음말
-

I. 머리말

698년 대조영이 고구려유민과 말갈족을 주축으로 발해를 세웠다. 발해의 건국은 주변 여러 나라의 이목을 끌었으며, 특히 신라는 고구려 옛 터전에 자리한 발해의 행보를 주시했다. 신라와 발해는 200여 년을 남과 북에서 공존하며 서로를 인식했다. 발해가 신라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살펴볼 만한 자료는 거의 남아 있지 않지만, 신라의 대발해 인식을 엿볼 만한 자료는 일부 확인된다. 신라의 대발해 인식과 관련해 여러 연구가 이어졌으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흐름으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신라의 천하관에 따른 인식이다. 하마다 고우사쿠(濱田耕策)는 신라가 당을 대조(大朝)로 자국을 대번(大蕃), 발해를 소번(小蕃)으로 인식했으며 그 근거로 대조영에게 대아찬의 관위를 주었다는 것과 발해보다 일찍이 당과 군신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들었다.¹ 사카요리 마사시(酒寄雅志)도 대조영에게 신라 관위를 준 기사를 근거로 신라 지배층 중에는 발해를 번국에 위치시키려 하는 의식이 존재했다고 보았다.² 이기동은 성덕왕이 발해를 신라의 번국으로 간주하여 대조영에게 대아찬의 관등을 주려 한 것으로 보았다.³ 문안식도 대조영을 대아찬에 책봉한 사실을 통해 발해를 번국으로 설정하고 북적, 적국(狄國)시켰다고 보았다.⁴ 김창검도 신라 중심의 천하관 아래 발해를 번국으로 인식했다고 보았다.⁵ 전덕재는 신라가 발해를 속국으로 인식하다가 733년 발해를 공격한 이후 적대관계를 유지했으며, 8세기

1 濱田耕策, 『新羅國史の研究』(東京: 吉川弘文館, 2002), 411쪽.

2 酒寄雅志, 『渤海と古代の日本』(東京: 校倉書房, 2001), 444~445쪽.

3 이기동, 「新羅 聖德王代の 政治와 社會」, 『歷史學報』 제160집(1998), 10쪽.

4 문안식, 「南北國時代論의 虛像에 대하여」, 『한국고대사연구』 제19권(2000), 226~227쪽.

5 김창검, 「新羅 國王의 皇帝的 地位」, 『新羅史學報』 제2호(2004), 224~225쪽.

중반부터 항례(抗禮)의 인국으로 대우했던 것으로 보았다.⁶

둘째, 발해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으로 고구려 계승국인지, 말갈국인지 여부에 초점을 맞춘 견해이다. 박시형은 신라가 발해를 북국이라고 부른 것은 고구려의 후계자, 즉 동족으로 인정했음을 의미한다고 보았다.⁷ 송기호는 신라가 발해를 때로는 고구려유민국가로, 때로는 말갈국가로 인식했다고 보았다.⁸ 한규철은 신라가 발해를 고구려 계승국가로 인식했으며, ‘말갈발해’ 등으로 불렀던 것은 발해와의 대결 상황에서 낮춰 부른 것이라고 보았다.⁹ 이강래는 고구려의 부활을 표방하는 발해가 ‘일통삼한’의식으로 고양된 신라 중대 왕실의 명분을 위협하였기에 신라인들은 발해의 고구려적 토대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부정하고 발해의 실체를 말갈로 규정했다고 보았다.¹⁰ 조이옥은 신라가 발해를 변국으로 설정하고 말갈족이 세운 국가로 인식했지만 발해가 성장하며 고구려계승의식을 표방함에 따라 신라의 발해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았다. 특히 일본 조정에서 발해 사신과 신라 학어의 만남은 신라가 발해를 고구려 계승국가로 새롭게 인식하게 된 계기였으며 신라도를 통해 교류하면서 동류의식을 갖게 된 것으로 이해했다.¹¹ 김강훈은 신라 지배층이 발해를 말갈이 주도하여 건국한 국가로 인식했으나 752년 일본을 방문한 신라 사절단에 의해 고구려 계승국을 표방하는 발해인의 인식이 유입되면서 신라인의 발해 인식에도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보았다.¹²

6 전덕재, 「8-9세기 신라와 발해, 일본의 자아와 타자 인식」, 『일본학연구』 제67집(2022), 40쪽.

7 박시형, 「발해사 연구를 위하여」, 『발해사 연구총서』 1(서울: 천지출판, 2000), 24쪽.

8 송기호, 「발해에 대한 신라의 양면적 인식과 그 배경」, 『한국사론』 제19권(1988).

9 한규철, 『渤海의 對外關係史』(서울: 신서원, 1994), 19~20쪽.

10 이강래, 「『三國史記』의 靺鞨 認識: 통일기 신라인의 인식을 매개로」, 『백산학보』 제52호(1999), 703~710쪽.

11 조이옥, 「新羅 中代 渤海觀의 變遷과 그 意味」, 『신라문화』 제25집(2005), 147~166쪽.

셋째, 대외관계사적 측면에서 신라와 발해가 서로 적대적이었는지 우호적이었는지에 초점을 맞춘 견해이다. 이우성은 당이 책봉 형식을 통해 신라와 발해를 승인하여 서로 대립 견제케 했으며 시종 적대정책을 취했다고 보았다.¹³ 이시이 마사토시(石井正敏)는 고구려 고지에서 일어난 발해에 대해 위협을 느낀 신라가 발해와 무력충돌을 벌이고 당과 외교의 장에서 다툼을 벌이는 등 발해에 대한 강렬한 대항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다.¹⁴ 이성시는 『신당서』 신라전에 보이는 장인(長人) 기사를 8세기 신라와 발해의 군사적 긴장을 배경으로 각인된 신라의 공포감과 불안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았다.¹⁵ 중국 학계에서도 대부분의 시기를 두 나라가 대치·대항했던 것으로 이해했다.¹⁶

신라의 발해에 대한 인식을 편의상 세 가지 연구흐름으로 나누어 보았지만 서로 연관시켜 이해함이 일반적이다. 주지하듯, 신라의 발해에 대한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호칭이다. 신라는 발해를 가리켜 ‘말갈, 발해말갈, 북적, 북국’ 등으로 다양하게 불렀다. 이러한 호칭의 차이는 ‘양국관계가 우호적이었는지 대립적이었는지에 따라 달랐던 것’¹⁷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그런데 신라가 8세기 전반에 발해를 낮추어 ‘말갈’이나 ‘북적’으로 부르다가 8세기 후반에는 정식 국호인 ‘발해’나 북쪽 나라인 ‘북국’으로 불렀다는

-
- 12 김강훈, 「신라 경덕왕대 백제 고지 정책의 시행과 그 배경」, 『대동문화연구』 제114호(2021), 238~245쪽.
 - 13 이우성, 「南北國時代와 崔致遠」, 『創作과 批評』 제10권 제4호(1975), 247쪽.
 - 14 石井正敏, 『日本渤海關係史の研究』(東京: 吉川弘文館, 2001), 166~177쪽.
 - 15 李成市, 『古代東아시아의 民族と 國家』(東京: 岩波書店, 1998), 381~406쪽.
 - 16 朱國忱·魏國忠(著), 濱田耕策(譯), 『渤海史』(東京: 東方書店, 1996), 211~214쪽; 魏國忠·朱國忱·郝慶云, 『渤海國史』(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6), 504~512쪽; 盧偉·蘇亮, 「渤海國與新羅的長期對峙關係略論」, 『牡丹江師範學院學報(哲社版)』 196(2016), 82~85쪽.
 - 17 송기호, 앞의 논문(1988), 99~101쪽; 한규철, 앞의 책(1994), 59쪽.

점이 주목된다. 이는 '8세기' 신라 안에서 발해를 번국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웃나라(隣國)로 인식하려는 또 다른 흐름이 등장했음을 보여준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온 배경이 무엇인지 8세기 신라의 대발해 인식을 보여주는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Ⅱ. 대발해 번국인식(藩國認識)의 형성

『동문선』에 실린 최치원의 「사불허북국거상표(謝不許北國居上表)」에는 897년 발해와 신라 사이 벌어진 윗자리 다툼(爭長事件)을 전하는 가운데 발해가 건국 초기 신라와 교섭한 내용이 실려 있다. 먼저 관련 기사를 아래에 제시해 본다.

A. “신(臣) 모(某)가 아뢰입니다. … 신이 삼가 발해의 원류를 살펴보았는데, 구려(句驪)가 아직 멸망하지 않았을 때 그 뿌리는 사마귀 혹같이 작은 부락으로 양갈(秧羈)에 속했습니다. 참으로 번성하여 무리를 이루니 울말소번(粟末小蕃)이라 이름니다. 일찍이 구려가 쫓기고 그 수령 걸사우 및 대조영 등을 내지로 옮겼는데 무후가 임조(臨朝)할 때 영주로부터 열(孽)을 지어 달아나 갑자기 황구(荒丘)에 의지해 처음으로 진국(振國)이라 칭했습니다. 때맞춰 구려의 남은 무리와 물길의 잡류가 있어 효음(梟音)으로 백산에 모였으며 치의(馳義)로 흑수에서 횡장(喧張)했습니다. 처음 거란과 악을 건너더니 돌아와 돌궐과 통모하여 만리에 곡식을 가꾸며 여러 번 요수를 건너는 수레를 막고 10년 동안 오디를 먹으며 늦게야 한(漢)의 깃발아래 향복했습니다. ㉠ 처음 읍을 세우고 살 때 와서 이웃의 도움에 기대었는데 그 추장 대조영이 비로소 신변의 제5품 대아찬의 품계를 받았습니다. ㉡ 뒤에 선천 2년에 이르러 모름지기 대조의 총명을

언어 발해군왕에 봉해져 가까이 오며 점점 은혜를 입었는데 갑자기 신변과
향례하러 한다고 들으니, 강관(絳灌)과 같은 열에 서러함은 차마 말할 수가
없습니다. …”¹⁸ (밑줄 필자. 이하 같음)

최치원이 언급한 발해 초기 신라와의 교섭 기사는 다른 사료에 보이지
않아 신빙성을 둘러싸고 견해가 엇갈린다. 정약용은 동사(東史)에 대조영이
신라에 의지하여 대아찬의 직을 받았다고 하나 김부식의 『삼국사기』에는
이런 글이 없다고 하였으며, 또한 멀리 신라에 벼슬한 사실이 없으니 대아찬
을 받았다는 것은 허망한 소리라고 했다.¹⁹ 이후 이어진 연구들은 불신의
근거로 최치원의 표문 외에 증명할 만한 관련 사료가 보이지 않는 점,
200여 년 뒤 기록으로 표문 자체도 석차를 둘러싼 다툼과 관련된 점, 시대
상황을 고려할 때 발해와 신라 사이 교섭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²⁰

한편, 긍정적인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수용한 견해도 있다. 최치원의
표문에 보이는 발해와 신라의 교섭기사를 처음 인용한 것은 안정복
(1712~1791)의 『동사강목』으로 알려져 있다. 안정복은 두 군데에서 이를
언급하였는데 「사불허북국거상표」와 『자치통감』·『문헌통고』의 내용을

18 『東文選』(33) 表箋 謝不許北國居上表, “臣某言 臣得當蕃宿衛院狀報 … 臣謹按渤海之源流
也 句驪未滅之時 本爲扶賢部落鞅鞞之屬 寔繁有徒是名栗末小蕃 嘗逐句驪 內徙其首領乞四
羽及大祚榮等 至武后臨朝之際 自營州作孽而逃 輒據荒丘 始稱振國 時有句驪遺燼勿吉雜流
梟音則嘯聚白山 鷗義則喧張黑水 始與契丹濟惡 旋於突厥通謀 萬里構苗 累拒渡遼之轍 十年
食甚 晚 陳降漢之旗 初建邑居 來憑隣援 其酋長大祚榮 始授臣蕃第五品大阿餐之秩 後至先
天二年 方受大朝寵命 封爲渤海郡王 邇來漸見辜恩 遽聞 抗禮臣蕃 絳灌同列 所不忍言 廉藺
用和 以爲前誠 …”.

19 丁若鏞, 『與猶堂全書』(6) 疆域考(4) 渤海續考.

20 濱田耕策, 앞의 책(2002), 397~403쪽; 다나카 도시아키, 「渤海建國初期의 對新羅關係」,
『北方史論叢』 제10호(2006), 46~47쪽; 신형식, 「7~10세기 新羅의 對北方政策」, 『北方史
論叢』 제10호(2006), 15~17쪽; 孫玉良, 「大祚榮附新羅考辨」, 『社會科學戰線』 2011-2(2011),
113~115쪽.

검토하여 대조영이 대아찬의 벼슬을 받은 해를 700년으로 고증했다.²¹ 한치윤(1765~1814)은 『해동역사』 권11 발해편에서 대조영이 신라에 내부하여 대아찬을 받았음을 기술했다. 이후 연구자들은 대외상황을 염두에 두고 신뢰하는 입장에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²²

먼저, 이 기사를 불신한 가장 큰 이유는 이를 증명할 만한 관련 사료가 보이지 않는 데 있었다. 그런데 당을 상대로 한 외교에서 최치원이 없는 사실을 지어내기는 어렵다. 897년 발해왕자 대봉예는 국력의 강약을 이유로 발해 사신이 신라 사신보다 윗자리에 앉아야 한다고 했다.²³ 최치원은 이러한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과거 양국 관계를 보여주는 사례를 든 것이다. 그리고 대아찬 수여 기사 앞뒤로 보이는 돌궐과의 통교나 거란과 당에 대항했던 사실, 713년 당의 발해군왕 책봉은 모두 사료에서 확인된다. 이들 기사들은 당과 관련 있는 사건들이기에 중국 측 사서에 남았지만 발해와 신라의 통교 기사는 두 나라만의 고유 기사였던 만큼 당 측에 굳이 알리지 않는 이상 중국 측 사서에 남기는 어렵다. 그런 점에서 국외 자료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불신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발해가 신라에 사신을 보낸 시점은 언제일까? 내빙인원(來憑隣援)이라는 문구가 주목된다.²⁴ 이는 발해가 주변 나라에 의지하여 지원을 받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먼저 당의 발해에 대한 입장이 가장 중요한

21 安鼎福, 『東史綱目』(4) 下; 『東史綱目』 附卷 上 考異 大祚榮初附新羅 孝昭王 8년(699).

22 박시형, 앞의 논문(2000), 27~28쪽; 한규철, 앞의 책(1994), 96~99쪽; 김중복, 『발해 정치외교사』(일지사, 2009), 77~79쪽; 조이욱, 『統一新羅의 北方進出 研究』(서경문화사, 2001), 110~114쪽; 酒寄雅志, 앞의 책, 104쪽; 馬一虹, 「渤海與後東突厥汗國的關係」, 『民族研究』 2007-1(2007), 60쪽.

23 『東文選』(33) 表箋 「謝不許北國居上表」.

24 한규철은 '來憑隣援'이라는 문구에 주목하고 당시 발해가 처한 불리한 상황을 검토했다. 한규철, 「新羅와 渤海의 政治的 交涉過程」, 『한국사연구』 제43집(1983), 133~135쪽.

변수이다. 당은 705년 당 중종의 복위를 기점으로 발해에 대한 정책이 진압에서 회유로 전환된다. 이를 고려하면 705년이 발해가 신라에 사신을 파견한 하한선으로 고려될 수 있다.

신라와 당의 관계도 변수로 고려된다. 699년 효소왕은 당으로 사신을 보냈다. 702년 측천무후가 사신을 파견하여 성덕왕을 책봉했으며²⁵ 이후 신라는 매 해 한두 차례, 많을 경우 세 차례 당으로 사신을 보냈다. 효소왕 대 후반기 이후 신라의 대당관계는 확실히 개선되었다. 그리고 당과 신라 관계가 정상화되지 않은 시점에 발해 사신을 받아들여기가 수월했을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702년 이전 발해가 신라에 사신을 파견했을 가능성이 크다. 대체로 698년부터 702년 효소왕이 사망하기 이전 어느 해로 추정된다.

이 기사에서 주목할 점은 신라가 대조영에게 대아찬을 주었다는 사실이다. ‘대아찬을 주었다’는 사실은 건국 초 신라가 발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683년 보덕왕 안승에게 사성하고 내린 관위가 제3위인 소관인 점²⁶과 비교해보면 낮지만 686년 고구려인에게 경관(京官)을 수여하며 본국의 관품을 헤아려 제수할 때 제3등인 주부(主簿)는 제7위인 일길찬, 673년 백제인에게는 경관의 경우 제2등인 달솔이 제10위인 대나마에 해당하는 점²⁷과 비교하면 높은 대우를 했다. 그렇더라도 이는 신라에 귀부한 보덕국에 미치지 못하는 일개 추장 세력 정도로 낮추어 보았음을 말해준다. 즉 신라의 천하관 아래 책봉받는 변국으로 인식되었다.

25 『冊府元龜』(964) 外臣部(9) 封冊(2).

26 『三國史記』新羅本紀 神文王 3년(683) 10월. 최근 최희준은 敵國禮 > 兄弟禮 > 舅甥禮 > 蕃臣禮 순으로 계층화되었던 당의 영접의례 예식을 신라가 현실에 맞게 변용하여 받아들였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안승의 보덕국에 대해서는 당의 兄弟禮나 舅甥禮에 준하는 예식을 운용했음을 밝혔다. 최희준, 「7세기 후반 신라의 영접의례 구성」, 『신라문화』 제59집(2021), 87~98쪽.

27 『三國史記』職官 下.

발해가 신라의 대야찬 수여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알 수 없다. 발해가 신라와의 교섭에 관심을 기울였던 데는 대당관계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 대당관계가 진전되어 우호적으로 나아간다면 굳이 수모를 감수하면서까지 신라와의 교섭에 매달릴 이유는 없다. 이는 발해가 당으로부터 책봉을 받음으로써 현실화된다. 양국 사이 교류사실을 보여주는 사료를 찾기 어려운 데는 이런 사정이 있다고 생각한다.

최치원은 발해가 713년 책봉을 계기로 당과 우호관계가 깊어졌음을 지적했다(사료 A-C). 처음 당 중종은 고왕을 책봉하려 했지만 거란과 돌궐의 방해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신라는 705년 3·9월, 706년 4·8·10월, 707년 12월 등 지속적으로 당에 사신을 보냈다. 이를 고려하면 당이 발해를 책봉하려 했음을 신라는 인지했을 것이다. 이어 '711년 11월 국교수립을 위한 사전 탐색차원에서 발해 사신의 대당입조가 이루어졌다.'²⁸ 당시 발해는 대문예를 숙위로 체류케 하는 등 국교 수립 이전부터 적극적으로 당에 접근해 나갔다.

비슷한 시기 신라는 당으로부터 성덕왕의 개명 요구를 받는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712년 3월 당은 사신 노원민(盧元敏)을 보내어 왕명(王名)을 고치도록 요구했다.²⁹ 앞서 당은 태종 무열왕의 시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었다. 신문왕이 거부 의사를 밝혔으며 당에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³⁰ 하지만 신문왕과 달리 성덕왕은 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선천

28 구난희, 「8세기 전반 발해의 동아시아 외교와 그 성격」, 『8세기 동아시아 역사상』(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11), 383~384쪽.

29 『三國史記』新羅本紀 聖德王 11년(712), “興光本名與太宗同 先天中則天改焉”; 『舊唐書』(199) 上 新羅國. 『舊唐書』에는 현종을 태종이라고 읽고 예종 대를 축천무후 대로 잘못 쓰여 있다. 『唐會要』(95) 新羅傳에는 “先天元年 改名興光.”이라고 했다.

30 『三國遺事』紀異(1) 太宗春秋公; 『三國史記』新羅本紀 神文王 12년(692).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의 기록상 차이가 있다. 『三國遺事』에서는 당 고종 대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나오고 『三國史記』에서는 692년 당 중종이 사신을 보내 문제를 제기하자,

원년에 개명했다. 712년 8월 갑진부터 713년 11월까지 선천을 썼으므로 선천 원년에 고쳤다면 712년 8월부터 12월 사이를 말한다.

왕명이 문제가 된 것은 당 황제로 즉위하기 전 이융기(李隆基)의 정치적 입지와 연관해 볼 수 있다. 예종은 즉위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710년 7월에 융기를 황태자로 세웠으며³¹ 711년 2월에는 감국을 맡겨³² 정치에 참여케 할 뿐 아니라 6품 이하의 제수 및 형벌과 관련해 스스로 처리하게 했다.³³ 당시 당의 내정은 측천무후의 막내딸 태평공주 세력과 태자인 이융기 세력이 서로 견제하며 대립했다.³⁴ 이런 사실은 차기 황위계승자로서 이융기의 위치를 분명하게 해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나당전쟁의 여운으로 소원한 관계에 있던 신문왕 대와 달리 성덕왕 대는 적극적인 대당외교정책을 펼쳐나가던 시기였다. 신라에서는 710년 정월 하정사가 입조한 뒤 711년 12월 다시 하정사를 당에 보냈다. 이 사이 종종이 사망하고 예종이 즉위하는 등 당의 정치 상황도 바뀌었다. 신라로서는 하정사를 통해 당의 내부 사정을 알았을 것이고 예종도 신라의 하정사를 계기로 노원민을 보내 성덕왕의 이름을 고치도록 했다. 노원민이 712년 3월에 왔다면 당은 아무리 늦어도 711년 말에는 개명을 문제 삼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³⁵

신문왕이 군신들과 의논하여 거부의사를 밝혔으며 당에서도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온다.

31 『舊唐書』(7)睿宗 景雲 1년(710).

32 『舊唐書』(7)睿宗 景雲 2년(711).

33 『舊唐書』(8)玄宗 上.

34 谷川道雄, 「武后朝末年より玄宗朝初年にいたる政争について」, 『東洋史研究』 14-4(東京: 東洋史研究會, 1956), 301쪽; 礪波護, 『唐代政治社會史研究』(京都: 同朋舍, 1986), 370쪽.

35 권덕영은 융기가 즉위한 712년 8월 이후 노원민이 제위를 물려받은 사실을 통보하기 위해 신라에 온 것으로 보았다. 권덕영, 「8, 9세기 '君子國'에 온 唐나라 使節」, 『新羅文化』 제25집(2005), 8쪽. 김종복은 황태자인 융기가 개명을 요구했다고 보았

신라의 견사는 713년 2월과 6월 두 차례 이루어진다. 713년 10월 입당사였던 김정중(金眞宗)이 당에서 내린 책봉조서를 받아 돌아왔다. 책봉조서를 받기위해서는 성덕왕의 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713년 6월 입당했던 사신이 돌아오면서 받을 수 있었다.³⁶ 이는 당시 상황을 통해 짐작해볼 수 있다. 현종은 712년 8월 황위에 올랐지만 713년 7월 3일 태평공주 일파의 모반 진압을 계기로 예종이 군국정사를 맡기면서³⁷ 실질적인 황권을 장악했다.

712년 12월에 파견된 사신이 가져간 표문에는 분명 개명된 이름이 적혀 있었을 것이다. 이때는 현종이 황제로 즉위한 뒤였다. 새 황제와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한다. 당시 발해와 당이 책봉수수를 통해 국교를 맺을 것이라는 분위기를 신라가 감지했는지 명확히 말하기 어렵지만 관계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은 인지했다고 생각한다. 713년 2월 고왕이 책봉을 받았으며, 같은 해 성덕왕에 대한 책봉도 이루어졌다.

표1- 발해와 신라 책봉호 비교

국명	구분	散官		職事官		勳官	爵
		文散官	武散官	武職事官	都督號		
발해				左驍衛員外大將軍 (正3品)	忽汗州都督		渤海郡王 (從1品)
신라	特進 (正2品)	驃騎大將軍 ³⁸ (從1品)	行左威衛大將軍 (正3品)	使持節大都督雜 林州刺史	上柱國 (正2品)		樂浪郡公新 羅王

다. 김종복, 「8세기 초 나당관계의 재개와 사신 파견」, 『진단학보』 제126호(2016), 13쪽.

36 권덕영도 6월에 입당한 사신이 책봉조서를 가지고 돌아온 것으로 보았다. 권덕영, 『古代韓中外交史』(일조각, 1997), 47쪽. 한편, 권은주와 김종복은 2월에 입당한 사신 편에 책봉서를 보냈다고 했다. 권은주, 「渤海 前期 北方民族 關係史」,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2), 62쪽; 김종복, 위의 논문(2016), 14쪽.

37 『舊唐書』(8) 玄宗 上.

38 古畑徹은 『唐會要』新羅傳의 “神龍三年 授驃騎大將軍”을 근거로 713년 책봉받은 무산 관은 표기장군이 아니라 표기대장군이라고 보았다. 古畑徹, 「七世紀末から八世紀初

먼저, 발해와 신라의 책봉호를 비교해보면서 당이 신라와 발해에 대해 각각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살펴보자. 발해군왕 책봉은 당이 발해로 사신을 보내 행했다는 점에서 신라와 달랐다. 이와 관련해 '713년 최훈이 홍려경을 섭관한 점, 책봉관작에서 도독호는 낮지만 무직사관의 격이 신라보다 높은 점은 당의 외교전략에서 거란과 해를 견제하는 배후세력으로 신라보다 발해가 중시되었기 때문으로 보는 견해'³⁹도 있다. 표1에서 보듯이, 무직사관은 동일하게 정3품이었다. 또한 양국의 책봉호 위계는 거의 동일했다. 배후세력으로 발해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그것만으로 신라보다 발해가 중시되었다고 말하기는 곤란하다. 신라는 산관에서 정2품의 문산관인 특진과 종1품의 무산관인 표기대장군을, 훈관에서는 정2품의 상주국을 받고 있는 데 비해 발해에게는 수여되지 않았다.

한편, 당은 신라에 대해 본국왕 작위의 계승을 인정했지만, 발해에 대해 당 안에 내신으로 통용하는 발해군왕을 수여했다. 이러한 발해군왕 작위는 신라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발해를 통해 신라 견제를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⁴⁰ 신라는 현종의 즉위에 맞춰 성덕왕에 대한 책봉을 당에 정식으로 요청했을 것으로 보이며 결국 책봉조서를 받고 신라 사신이 귀국했다.⁴¹

신라는 발해를 번국으로 낮춰 보았지만 당이 발해군왕으로 책봉했을 뿐 아니라 책봉호의 위상도 신라에 못지않다는 사실에 적잖은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당의 책봉이 이루어진 뒤 신라는 714년 2월 상문사(詳文司)를 통문박사(通文博士)로 고쳤으며 외교와 관련된 서표(書表)의 일을 관장하게

にかけての新羅・唐關係」, 『朝鮮學報』 107, 1983, 47쪽.

39 古畑徹, 「日渤海開交開始期の東アジア情勢: 渤海對日通交開始要因の再検討」, 『朝鮮史研究會論文集』 23(1986), 99쪽, 113쪽 각주 35.

40 金子修一, 「唐朝より見た渤海の名分的位置付けについて」, 『東アジア史における國家と地域』(東京: 刀水書房, 1999), 414쪽.

41 김중복은 당이 발해를 견제하기 위해 성덕왕을 책봉한 것으로 보았다. 김중복, 앞의 논문(2016), 8쪽.

했다. 같은 해 2월 왕자 김수충(金守忠)이 숙위사로 당에 도착했으며,⁴² 10월에는 현종이 내전에서 신라 사신을 위해 연회를 베풀고 재신 및 4품 관료들을 참석케 했다.⁴³ 또한, 통일 이전 왕자나 왕족을 보내 숙위하다가 나당전쟁을 거치며 교섭이 사실상 중단되었던 숙위의교가 714년에 다시 이뤄졌다.⁴⁴ 『옥해』에는 “714년 3월 발해 학생 6명과 7명의 신라 학생이 국학에 입학했다.”고 전한다.⁴⁵ 당의 책봉에 대한 답사이자 대당관계 강화를 위한 신라의 외교적 조치였다.⁴⁶

성덕왕 대 신라의 친당외교는 당으로부터 ‘군자국(君子國)’으로 불릴 만큼 당의 신라 인식에도 영향을 미쳤다. 두 나라 사이에 오고간 외교문서에는 당의 신라에 대한 인식뿐 아니라 신라의 발해에 대한 인식도 담겨 있다.

B. (당 현종 개원 19년 2월) 무오 신라가 그 신하 김지량을 보내어 하정하였다. 태복소경원외치를 제수하고 백(帛) 60필을 주며 돌아가게 했다. 신라 김홍광에게 서를 내리며 이르기를, “진상한 우황 및 금은 등의 물건과 표를 살피니 온전히 갖추었음을 알 수 있다. 경 부부가 행복하고 삼한은 선린하니 인의의 향이라 일컫는다. 대대로 훈현(勳賢)의 업이 나타나고 문장과 예악은 군자의 풍을 드러냈다. 정성과 충심은 근왕의 절을 본받았다. 참으로 번유(蕃維)의 진위(鎭衛)이며, 진실로 중외의 의표(儀表)이니, 어찌 이역의 사나운 풍속과

42 『三國史記』新羅本紀 聖德王 13년(714); 『冊府元龜』(996) 外臣部 納質.

43 『三國史記』新羅本紀 聖德王 13년(714). 권덕영은 또 한 차례의 건당사가 파견된 것으로 보았다. 권덕영, 앞의 책(1997), 48쪽.

44 신형식, 『韓國古代史의 新研究』(서울: 일조각, 1984), 359~365쪽.

45 『玉海』(153) 朝貢 唐渤海遣子入侍.

46 濱田耕策은 통문박사로의 변경을 신라가 대당외교 강화를 통해 발해국을 견제하기 위해 취했던 조치의 하나로 보았다. 濱田耕策, 앞의 책(2002), 131쪽. 古畑徹은 개명부터 책봉수수, 숙위원의 부활로 이어지는 친밀한 관계의 배경으로 당의 절도사 설치 등으로 인한 변방체제의 충실과 이의 연장에서 대외적극책의 전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古畑徹, 앞의 논문(1986), 113쪽 각주31.

같이 말할 수 있겠는가! ...”⁴⁷

C. “신라왕 개부의동삼사사 지절대도독 계림주제군사상주국 김홍광에게 칙한다. 하정사인 김갈란(金竭丹) 등이 이르러 진물(進物)한 바를 얻고 표문을 살피어 알겠다. 힘한 바닷길에도 조하(朝賀)를 빠뜨리지 않고 해마다 충근(忠謹)을 더하니 매일 감탄하고 칭찬한다. 이른바 군자가 나라를 다스림에 반드시 예로 말미암는다. ...”⁴⁸

B사료는 731년 하정사로 왔던 김지량이 신라로 돌아갈 때 현종이 성덕왕에게 내린 칙서이다. 이에 따르면, 현종은 신라를 문장과 예악을 갖춘 군자의 풍모가 있는 나라로 이역과는 구별된다며 추켜세웠다. C사료는 현종이 734년 가을 귀국하는 김충신 편에 성덕왕에게 내린 것이다. 이 칙서에서도 당은 신라의 조공물과 표문을 보고 찬탄하며, 군자가 나라를 다스림에 예로 말미암는다고 했다. 당은 신라를 군자의 나라로 여겼던 것이다. 성덕왕 사후 당 현종은 신라에 조제사(弔祭使)로 떠나는 형숙(邢肅)을 송별하며, “신라는 군자의 나라로 불리며, 자못 서기를 알아 중화와 닮은 데가 있소. 경은 학술로서 강론을 잘하기에 이번에 사신으로 뽑았으니 그곳에 이르러 마땅히 경전을 드러내 밝히어 대국의 유교가 성함을 알도록 하시오.”⁴⁹라 당부했다.

당의 신라에 대한 특별대우와 군자국 인식은 신라의 자부심을 한껏

47 『册府元龜』(975) 外臣部(20) 褒異(2), “[唐玄宗 開元十九年(731) 二月] 戊午 新羅遣其臣金志良來賀正 授太僕少卿員外置 賜帛六十匹 放還蕃 降書與新羅王金興光曰所進牛黃及金銀等物 省表具知 卿二明慶祚 三韓善隣 時稱仁義之鄉 代著勳賢之業 文章禮樂 聞君子之風 納款輸忠 劾勤王之節 固蕃維之鎖衛 諒中外之儀表 豈殊方悍俗 可同年而語耶 ...”.

48 『文苑英華』(471) 蕃書(4) 張九齡 勅新羅王金興光書, “勅新羅王開府儀同三司使持節大都督雞林州諸軍事上柱國王金興光 賀正使金竭集作竭丹等至 兼得所進物 省表具知 海路艱阻 朝賀不闕 歲益忠謹 日以嗟稱 所謂君子爲邦 動必由禮 ...”.

49 『舊唐書』(199) 上 新羅, “上謂孺曰 新羅號爲君子之國 頗知書記 有類中華 以卿學術 善與講論 故選使充此 到彼宜闡揚經典 使知大國儒教之盛”.

고양시켰다. 735년 2월 신라 사신이 자국을 '왕성국(王城國)'이라 부른 사실⁵⁰로 인해 일본과 마찰을 일으켰다는 『속일본기』 기사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또한 최치원이 올린 표문에는 당 현종이 내린 조지(詔旨)의 내용 일부가 전해지는데, 이에 따르면, “경의 나라는 거의 노위(魯衛)에 비교된다 할 것이니, 어찌 또 번복(蕃服)과 똑같이 대우하겠는가.”라고 했다.⁵¹ 이렇듯, 신라는 왕성국이자 군자의 나라로 자부했으며, 당도 신라를 군자의 품모가 있는 나라로 인정하며 다른 나라와 구별했다.⁵²

732년 9월 발해의 등주 공격으로 발해·당 전쟁이 일어났다. 신라는 당의 요구로 전쟁에 참여했지만 숙위로 있던 성덕왕의 사촌동생 김충신은 734년 2월 표문을 올리며 발해에 대해 적극적인 토벌의지를 내비쳤다.

D. (개원) 22년 2월 신라왕 흥광의 사촌동생 좌령군위원의장군 충신이 표를 올리며 이르기를, “신이 받들고자 하는 진지(進止)는 절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 병마를 내어 말갈을 토벌케 하는 것입니다. 일이 있어 계속 아될 것은 신이 스스로 성지를 받들어 장차 목숨을 바치기로 맹세합니다. 마침 교대하려는 김효방이 죽어 신을 숙위로 머무르게 하였습니다. 신의 본국왕은 신이 오래도록 천정에 있어 종질인 지럼으로 대신하고자 보내어 이제 이르렀

50 『續日本紀』(12) 聖武天皇 天平 7년(735) 2월, “癸丑 遣中納言正三位多治比真人縣守於兵部曹司 問新羅使入朝之旨 而新羅國輒改本號曰王城國 因茲返却其使”.

51 崔致遠, 『孤雲集』(1) 表 謝賜詔書兩函表, “... 仍以臣先祖興光憲英父子但能慕善 累賜八分御札 莫不龍騰鳳翥 綵牋由是益光 神筆至今猶潤 分寶玉於伯叔之國 則嘗聞之 賜銀駒於夷狄之鄉 所未見也 其詔旨則曰 殆比卿於魯衛 豈復同於蕃服 ...”.

52 하일식은 신라 스스로 당의 번국으로 여기면서도 당의 주변부에 있는 여러 국가 중 으뜸 되는 나라로 자부하였다고 했다. 하일식, 「당 중심의 세계질서와 신라인의 자기인식」, 『역사와 현실』 제37호(2000), 83쪽. 전덕재는 신라가 중국의 번국으로 자처하면서 한편으로는 왕성국이라고 자칭하였는데, 이는 문화적으로 낙후된 발해나 일본과 차별하기 위해 스스로를 유교문화적 측면에서 군자국으로, 발해나 일본을 이적국가로 인식한 관념에 근거한 것으로 보았다. 전덕재, 「新羅의 對外認識과 天下觀」, 『역사문화연구』 제20호(2004), 224~225쪽.

으니 신은 곧 돌아감이 맞을 듯합니다. 늘 앞서 진지(進旨)를 받들었던 바를 생각하면 밤낮으로 잊을 수 없으니 폐하께서 앞서 본국왕 흥광에게 영해군대사를 더하고 정절을 내려 흉잔을 토벌케 하셨습니다. 황위가 임하면, 비록 멀더라도 가까운 듯하고 군의 명이 있으면 신이 감히 공경치 않겠습니까! 어리석은 저 이부는 죄를 뉘우치려 하지만 근본까지 악을 제거하고 법령을 펴는 유신케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군사를 내는 것은 의리가 삼신보다 귀해야 합니다. 적을 놓아주면 누대에 근심을 남기게 됩니다. 옳되려 바라건대 폐하는 신이 환국할 때 부사의 직을 임시로 내려 장차 천지(天旨)를 다하게 하여 수예(殊裔)에게 선포케 하십시오. 사노(斯怒)를 더하고 무부(武夫)의 용기를 굳게 하니 반드시 그 소굴을 뒤집어 이 황우를 고요케 하는 것이니 마침내 이신(夷臣)의 소성(小誠)으로 국가의 큰 이익이 될 것입니다. 신 등은 다시 창해에 배를 띄워 돌아와 단위(丹圍)에 승첩을 알리며, 터럭같은 공을 바쳐 우로(雨露)같은 시혜에 보답하는 것이 신의 소실(所室)입니다. 바라건대 폐하께서 도모해 주십시오.” 황제가 허락하였다.⁵³

김충신은 표문에서 발해를 당을 거역한 흉악한 오랑캐로 발본색원할 것을 요청하며 자국의 군사를 내겠다고 천명했다. 이는 성덕왕의 속내가 반영된 것이다. 주목되는 점은 발해와 당의 전쟁이 소강상태에 접어든 시점에 토벌의지를 피력했다는 사실이다. 현종은 성덕왕에게 틈을 엿보아 공격토록 했다. 이듬해인 735년 당이 패강 이남의 땅을 신라의 소유로 인정한 것을 본다면 그 이면에는 신라의 이러한 계산이 깔려 있었는지도

53 『册府元龜』(973) 外臣部 助國討伐, “(唐玄宗開元) 二十二年 二月 新羅王興光從弟左領軍衛員外將軍忠信上表曰臣所奉進止 令臣執節本國 發兵馬討除鞮鞞 有事續奏者 臣自奉聖旨 誓將致命 當此之時 爲替人金孝方身亡 便留臣宿衛 臣本國王以臣久待天庭 遣從姪至廉代臣 今已到訖 臣即合還 每思前所奉進旨 無忘夙夜 陛下先有制 加本國王興光寧海軍大使 錫之旌節 以討凶殘 皇威戰臨 雖遠猶近 君則有命 臣敢不祇 蠹爾夷倖 計以悔禍 然除惡務本 布憲惟新 故出師義貴乎三申 縱敵患貽於數代 伏望陛下因臣還國 以副使假臣 盡將天旨 再宣殊裔 豈惟斯怒益振 固亦武夫作氣 必傾其巢穴 靜此荒隅 遂夷臣之小誠 爲國家之大利 臣等復乘桴滄海 獻捷丹圍 效毛髮之功 答雨露之施 臣所室也 伏惟陛下 圖之 帝許焉”.

모른다.⁵⁴

신라의 적극적인 토벌의지 표명에는 또 다른 배경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표문에서 김충신은 발해를 ‘말갈(靺鞨), 흉잔(凶殘), 이부(夷俘)’로 표현했으며 자국은 ‘수예(殊裔), 이신(夷臣)’이라고 했다.⁵⁵ 같은 오랑캐라 하더라도 발해는 당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존재이고, 신라는 당의 질서를 지키는 충실한 번임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삼국유사』 효성왕조에서는 733년 “계유 당인이 북적을 치고자 신라에 청병했다. 객사 604인이 왔다가 돌아갔다.”고 전하며 발해를 ‘북적’이라고 표현했다.⁵⁶ 733년은 효성왕 대가 아니라 성덕왕 대이다. ‘북적’이라는 표현이 일연의 인식이나 당의 인식으로 불여지도 있다. 하지만 일연은 『삼국유사』 말갈발해조에서는 관련 사료를 인용하고 의견을 달면서도 ‘북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다. 또한 『삼국유사』 효성왕조에 보이는 청병 기사에는 중국측 사서에 보이지 않는 구체적인 사신 규모가 나와 있다. 이는 효성왕조 기사가 우리 측 고유 기사임을 말해준다. 따라서 『삼국유사』 효성왕조에 보이는 ‘북적’은 원사료를 인용한 것으로 신라가 자국의 천하관 속에서 발해를 북적으로 인식했음을 보여준다.⁵⁷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표문에 보이는 ‘말갈, 흉잔, 이부’란 표현은

54 조이옥은 발해 견제를 구실로 당으로부터 패강 이남의 영유를 승인받기 위한 일련의 군사외교 차원으로 이해했다. 조이옥, 앞의 논문(2005), 154~157쪽.

55 전덕재는 ‘凶殘, 夷俘’라는 표현은 신라가 발해를 그들의 번국이 아니라 당의 번국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이렇게 부른 것으로 당시 신라인들은 발해를 이웃에 위치해 있는 나라로 인식했다고 보았다. 전덕재, 앞의 논문(2004), 215쪽.

56 『三國遺事』紀異(2) 孝成王, “開元二十一年 癸酉 唐人欲征北狄 請兵新羅 客使六百四人來還國”. 국사편찬위원회가 제공하는 규장각본과 조병순 소장본 원문 이미지에는 ‘北狄’이라고 나온다. 이병도는 이를 ‘北狄’으로 고쳤다. 이병도(역주), 『三國遺事』(서울: 명문당, 1992), 61쪽. 여기서는 ‘北狄’의 오기로 보고 논의를 진행했다.

57 다나카 도시아키는 효성왕조에 보이는 ‘北狄’을 후대의 追記로 이해했다. 다나카 도시아키, 앞의 논문(2006), 47쪽. 古畑徹은 7세기 말부터 730년대 사이에 당의 對靺鞨·渤海인식이 ‘東夷’에서 ‘北狄’으로 바뀌었다고 보았다. 古畑徹, 『靺鞨·渤海はなぜ「北狄」なのか』, 『東方學』 140(2020). 한편, 전덕재는 신라가 자국 중심의 세

신라의 대발해 번국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아도 좋을 듯하다.

이상에서 보듯, 발해가 안정되어가자 당은 그 전략적 가치를 인정하며 국교를 맺었다. 신라는 발해와 당관계에 자극을 받으며 대당관계를 강화해 나갔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와 달리 군자국으로 대우받고 있음에 자부심을 느끼며 발해를 번국이자, 북쪽에 자리한 오랑캐로 인식했다.

Ⅲ. 대발해 인국인식(隣國認識)의 등장

771년 조성된 성덕대왕신종은 봉덕사종이라고 불린다. 봉덕사는 738년 효성왕이 아버지 성덕왕의 복을 빌기 위해 세운 사찰이다. 경덕왕은 성덕왕을 위해 주종했지만 완성을 보지 못하고 혜공왕 대 완성했다.⁵⁸ 이 신종에는 성덕왕을 회상하며 작성한 명문이 남아 있으며 그 일부를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E. “앞드려 생각하건대, 성덕대왕의 덕은 산하와 같이 높고, 명성은 일월과 나란히 높이 걸렸다. 총량함으로 세속을 어루만지고, 예악을 높여 풍속을 살폈다. 들에서는 근본인 농업에 힘썼고, 저잣거리에는 넘치는 물건이 없었다. 그때에 금옥을 싫어하였고, 세상은 문재를 높였다. 뜻하지 않게 아들을 잃어 늙어서도 조심하고 삼가는 마음이 있었다. 40여 년 나라를 맡아 부지런히 정사를 돌보았으며 한 번도 전쟁으로 백성을 놀라게 하거나 어지럽히지 않았다. ㉠이런 까닭에 사방의 이웃나라가 만리에서 손님으로 오는데, 오직 풍속과

계질서 속에 발해를 편입하려 했지만 732년 발해가 당을 침략함에 따라 번속국으로 인식하는 것을 포기하고 夷狄國으로 낮춰 보았다고 했다. 전덕재, 「8세기 신라의 대일외교와 동아시아 인식」, 『일본학연구』 제44권(2015), 46쪽.

58 『三國遺事』 塔像(4) 皇龍寺鐘 芬皇寺藥師 奉德寺鐘.

교화를 흠모하는 바람만 있을 뿐 화살을 날릴 틈을 엿본 적은 없었다. 연(燕)과 진(秦)나라에서 사람을 쓰고, 제(齊)와 진(晉)나라에서 패권을 바꾸는 일과 어찌 수레를 나란히 하며 두 고삐를 잡는 것과 같이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쌍수의 날은 헤아리기 어려웠고 천추의 밤은 쉽게 길어졌다. 돌아가신 이래 지금 34년이 되었다.⁵⁹

명문 가운데 E-㉠에 대해서는 성덕왕이 발해를 신라의 번국으로 간주하여 대조영에게 대아찬의 관등을 부여하려 했다⁶⁰거나 신라가 발해와 일본 등 주변 제국을 '번'에 위치시키려 한 자신감이 내재된 것⁶¹으로 이해했다. 주지하듯, 성덕왕 대 신라는 일본과 외교적 마찰을 빚었으며 발해에 대해 당과 연합하여 공격한 적도 있었다. 따라서 이웃나라가 신라를 흠모하여 왔다거나 화살을 날릴 틈을 엿본 적이 없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윤색이다. 여기에는 성덕왕의 덕을 높이고자 한 바람이 투영된 것으로 신라가 발해보다 우위에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다만 신라가 발해를 비롯한 주변국을 '사방의 이웃나라[四方隣國]'로 본 사실이 유의된다. 이는 발해를 이전처럼 북쪽의 오랑캐로 치부하던 인식에서 한 발 물러나 차등을 전제한 이웃나라, 교류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면, 이러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온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 먼저 신라 밖 당의 상황이 주의된다. 755년 안록산의 난으로 시작된 반란은 763년 사조의가 죽을 때까지 8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되었으며, 동아시아 여러 나라도 당의 혼란을 예의주시했다. 신라는 756년 현종이 즉으로 피신한

59 「聖德大王神鍾之銘」, “伏惟聖德大王 德共山河而並峻 名齊日月而高懸 舉忠良而撫俗 崇禮樂以觀風 野務本農 市無濫物 時嫌金玉 世尚文才 不意子靈 有心老誠 四十餘年 臨邦勤政 一無干戈 驚擾百姓 所以四方隣國 萬里歸賓 唯有欽風之望 未曾飛矢之窺 燕秦用人 齊晉替霸 豈可並輪雙轡而言矣 然雙樹之期難測 千秋之夜易長 晏駕已來于今三十四也.”.

60 이기동, 앞의 논문(1998), 10쪽.

61 酒寄雅志, 앞의 책(2001), pp.444~445.

것을 들고 사신을 보내 성도(成都)에 이르러 조공을 바치며 당의 현실을 똑똑히 보았다.⁶² 이후 당은 지배체제 전반을 재정비하였으며, 각 지방에 군림하던 군진세력이 독자노선을 걸어갔다. 이에 따라 신라에서도 친당의 존의 주류적 흐름에 변화가 일어나 대당자립의식이 나타나기 시작했다.⁶³ 신라는 762년 오곡(五穀) 등 6성을 쌓고 태수를 두는 등 북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잠재적 위협에 대처했다.

당과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었던 발해는 더욱 민감했다. 발해의 대응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료가 『속일본기』에 보인다. 758년 9월 18일 오노노 다모리(小野田守)가 발해에서 파견한 양승경(楊承慶)과 함께 일본으로 돌아왔다. 12월 10일 오노노 다모리는 755년 11월 9일 범양절도사 안록산이 모반을 일으켰으며 현종이 검남(劍南)으로 피난하였다고 당의 정세에 대해 소상하게 보고했다. 당시 평로유후사(平盧留後事) 서귀도(徐歸道)는 안록산의 난을 진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을 요청했지만 발해는 이를 의심하여 군사를 움직이지 않았다. 이후 안동도호 왕현지(王玄志)도 도움을 청했지만 역시 발해는 사태의 전말을 신중히 확인했다.⁶⁴ 안록산의 난은 당에게는 위기였지만 발해는 이를 호기로 바꾸었다.

당은 문왕에게 천보(742~756) 중 특진(特進), 태자첨사(太子詹事), 빈객(賓客)을 더해주었으며⁶⁵ 762년에는 발해를 국으로 흠무를 왕으로 삼고 검교태위(檢校太尉)를 주었다.⁶⁶ 이 중에는 안록산의 난이 일어난 뒤 당의 필요에 따라 진봉된 사례도 있을 것이다. 더욱이 당에서 진봉 받은 관직 가운데 직사관인 검교태위는 정1품으로 신라는 785년에야 받았다. 이렇듯, 문왕

62 『三國史記』新羅本紀 景德王 15년(756).

63 주보돈, 「신라의 '東京'과 그 의미」, 『대구사학』 제120권(2015), 26~30쪽.

64 『續日本紀』(21) 淳仁天皇 天平實字 2년(758).

65 『舊唐書』(199) 下 渤海靺鞨.

66 『新唐書』(219) 渤海.

후기가 되면 발해의 국력이 상승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신라보다 직사관의 품계가 높아지기도 했다.⁶⁷

발해는 신라와 비슷하지만 다른 행보를 이어나갔다. 신라가 친당정책으로 일관하며 군자국으로 대우받는 사실에 만족하고 있었다면, 발해는 왕족을 숙위사로 파견하며 적극적인 대당외교정책을 취하면서도 망명한 대문예를 둘러싼 당과의 논의 과정에서 현종이 거짓 변명한 사실을 알고 격렬히 항의했다. 심지어 등주를 선제공격하여 무력대결을 벌이기도 했다. 그리고 신라가 연호를 포기하고 당의 연호를 받아들였다면 발해는 '사사로이' 연호를 사용했다.

발해는 당의 책봉을 받았지만 안에서는 황제체제를 지향했다. 무왕이 727년 보낸 국서 내용에는 주변 열국을 주관하고 제번(諸藩)을 아울렀다고 했다. 여기서 발해가 번국을 상징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792년 사신으로 갔던 양길복(楊吉福)이 압말갈사였으며, 798년 당에 사신으로 갔던 여부구(茹富仇)의 관직이 우후누번장도독(虞侯婁蕃長都督)이었던 사실도 말갈족을 번국으로 상징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정혜공주묘지명과 정효공주묘지명에서는 문왕을 대왕, 성인, 황상 등으로 표현했다.⁶⁸ 근래 용두산고분군에서 문왕의 비인 효의황후(孝懿皇后)의 묘지가 출토되어⁶⁹ 이런 사실을 더욱 뒷받침해준다. 이렇듯, 당과 전쟁을 마다하지 않으면서도 안으로 황제체제를 지향하며 자주적인 노선을 취하는 발해의 위상은 크게 높아졌다.

신라는 발해의 위상 변화나 천하관을 여러 경로를 통해 체감했을 것이다. 신라와 발해가 직접 교류했음을 보여주는 사료는 거의 보이지 않지만 서로를 인식하고 교류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갖춰졌다. 발해의 대외교통로

67 송기호, 『渤海政治史研究』(서울: 일조각, 1995), 119~121쪽.

68 송기호, 위의 책(1995), 99~126쪽, 177~197쪽.

69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延邊朝鮮族自治州 文物管理委員會辦公室, 「吉林和龍市龍海渤海王室墓葬發掘簡報」, 『考古』 2009-6(2009).

가운데 신라도가 있다.⁷⁰ 공식적인 길이 있다는 것은 교류를 전제로 한다.

F-1. “가탐고금군국지에 이르기를, 발해국에는 남해·압록·부여·책성 4부가 있다. 나란히 고구려의 옛 땅이다. 신라 천정군으로부터 책성부에 이르기까지 무릇 39역이다.”⁷¹

F-2. “정천군은 본래 고구려의 천정군이다. 문무왕 21년 이를 취했다. 경덕왕이 이름을 고쳤고 탄항관문을 쌓았다.”⁷²

가탐(730~805)의 『고금군국지』에는 발해의 4부가 나오며, 신라 천정군으로부터 책성부까지 39역의 존재를 알려준다. 신라 천정군으로부터 발해 책성부까지 39역이란 정보는 763년부터 764년 무렵 발해로부터 신라 동북경으로 입국했던 한조채에 의해 수집 전달된 것이라고 한다.⁷³ 그런데 천정군에서 정천군으로 이름이 바뀌는 것은 757년이다. 『고금군국지』에는 신라 ‘천정군’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가탐의 이 정보는 757년 정천군으로 이름이 바뀌기 전 정보로 볼 수 있다. 즉 757년 이전에 신라도가 정비되어 있었음을 말한다. 사료에서 보듯이, 정천군에 탄항관문을 쌓았다. 탄항관문의 설치 시기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경덕왕 대⁷⁴로 이해된다.

70 『新唐書』(219) 渤海.

71 『三國史記』地理(4).

72 『三國史記』朔州.

73 赤羽目匡由, 『渤海王國の政治と社會』(東京: 吉川弘文館, 2011), 37쪽.

74 安鼎福, 『東史綱目』附卷 下 新羅疆域考; 이병도(역주), 『三國史記』(下)(을유문화사, 1995), 198쪽; 송기호, 『발해 사학사 연구』(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0), 30~31쪽. 한편, 池内宏은 681년 고구려의 泉井郡이 신라 땅으로 새로 들어오고 난 뒤 쌓은 것으로 본다. 池内宏, 『滿鮮史研究』(東京: 吉川弘文館, 1960), 46~47쪽. 赤羽目匡由는 ‘景德王改名’이란 글귀는 『삼국사기』지리지에 자주 나오는 정형구로 ‘築炭頂關門’까지 걸쳐 생각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721년 성덕왕이 하슬라인을 동원하여 북경에 쌓았던 장성으로 이해했다. 赤羽目匡由, 위의 책(2011), 196쪽. ‘景德王改

G-1. “총장 2년 영국공 이적이 칙을 받들어 고구려 여러 성에 도독부 및 주현을 두었다. 목록에 이르기를, 압록 이북에 이미 항복한 성이 11인데 그 하나가 국내성으로 평양으로부터 이곳까지 17역이다. 곧 이 성은 또한 북조 경내에 있는데 다만 어느 곳인지를 모르겠다.”⁷⁵

G-2. “압록강 어귀에서 배로 100여 리를 가서 작은 배로 동북쪽으로 30리 물길을 거슬러 오르면 박자구에 이르는데 발해 땅이다. 또 500리를 거슬러 오르면 환도현성에 이르니 옛 고려의 왕도이다. 또 동북으로 200리를 거슬러 오르면 신주에 이르며, 다시 물으로 400리를 가면 현주에 닿으니 천보 중왕이 도읍한 곳이다. 또 정북에서 동쪽 600리를 가면 발해 왕성에 이른다.”⁷⁶

한편, 서북 방향으로 신라와 발해 사이 이어진 노선은 없었을까? 위 사료를 살펴보자. 고구려 멸망 이후 이적이 작성한 목록에 따르면, 국내성에서 평양까지 17개 역이 있으며 이 성은 북조 경내에 있다고 했다(G-1 참조). 고구려 멸망 이후 이 지역은 방기되었지만 국내성부터 평양까지 17개 역이 있었던 만큼 길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았다. 또한 당으로부터 ‘사이(四夷)’로 통하는 중요한 일곱 가지 길 가운데 하나인 <등주해행입고려 발해도>에는 국내성으로부터 발해 왕성까지 가는 주요한 노선이 나와 있다(G-2 참조). 대체로 고왕, 늦어도 무왕대 국내성은 발해 영역 안에 있었다. 신라 서북 방면에서 출발할 경우, 평양과 국내성을 거쳐 발해 왕성까지의 길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이상을 정리해보면 신라 왕성으로부터 발해 왕성까지 서북 방면과 동북

名이라는 글귀가 정형구이기는 하나 정천군만 ‘築炭頂關門’이 이어져 있다는 점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져 생각할 필요가 있다.

75 『三國史記』地理(4) 高句麗 百濟.

76 『新唐書』(43) 下 地理(7) 下.

방면의 두 가지 노선이 있었다. 서북 노선이 지나는 '대동강 이북부터 압록강 이남지역은 뚜렷한 영역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완충지대였다.'⁷⁷ 반면, 동북노선은 발해와 신라가 니하를 경계로 국경을 마주했으며, 각 역이 정비된 상태이다. 두 노선이 차이는 있었지만 이를 통해 신라와 발해는 상호 교류를 이어갔을 것으로 짐작된다.

신라와 발해는 당이나 일본에서 자주 마주할 기회가 있었다. 『책부원구』와 『삼국사기』에 보이는 두 나라 사신의 파견연월을 토대로 당에서 마주쳤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해로는 711(발11월·신12월), 717(발5·신5), 722(발11·신10), 724(발2, 12·신2, 12), 726(발3, 4·신4, 5), 729(발2, 8·신1, 9), 730(발1, 2·신1, 2), 731(발2·신2), 737(발1·신2), 746(발3·신2), 747(발1·신1), 767(발7, 8·신7), 773(발4, 6·신4, 6), 775년(발1, 6·신1, 6)으로 최소 20차례 이상이다. 신라 사신은 당을 오가며 발해의 달라진 위상을 마주했을 것이다.

H-1. “12년(740) 봄 정월 무자 초하루 천황이 대극전에서 신년 축하 조회를 받았다. 발해군의 사신과 신라학어 등이 행렬에 함께 서 있었다.”⁷⁸

H-2. (가을 7월) 갑인 신라 사신 대나마 김재백 등 91인이 대재(大宰)의 박다진(博多津)에 도착하였다. 우소변 종5위하 기조신우양과 수도대위 외종5위하 속전조신도마려 등을 보내 그 연유를 물었다. 김재백 등이 이르기를, “당나라 칙사인 한조채가 발해로부터 와서 이르대 ‘일본국 승려 계응을 보내

77 다나카 도시아키, 앞의 논문(2006), 69쪽. 평양 일대에서 발해 유적이거나 유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고고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 早乙女雅博, 「渤海と高句麗」, 『日本と渤海の古代史』(山川出版社, 2003), 228~229쪽. 더구나 901년 궁예가 평양이 황폐화 되었음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三國史記』列傳 弓裔) 이 일대는 발해나 신라의 점유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잘 보여준다.

78 『續日本紀』(13) 聖武天皇, “十二年 春正月 戊子朔 天皇御大極殿受朝賀 渤海郡使新羅學語等同亦在列”.

분향으로 돌아가도록 함을 이미 마쳤다. 만일 평안하게 귀향하였다면 마땅히 알렸을 텐데 오늘에 이르도록 소식이 없다.’고 한다. …”⁷⁹.

H-1 사료는 740년 일본 조정에서 발해 사신과 신라학어가 같은 열에서 신년조회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로의 존재를 의식했을 것이다. H-2 사료는 764년 7월 19일 신라 사신 김재백 등이 유학승 계옹의 귀국 소식을 알고자 하는 당나라 칙사 한조채의 부탁을 받고 일본에 갔을 때의 상황을 전한다. 당시 김재백은 한조채의 소식을 전하며, 발해를 정식 국호인 ‘발해’로 부르고 있다.⁸⁰ 이렇듯, 신라는 발해와 직접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었을 뿐 아니라 당이나 일본 조정에서 자주 마주쳤다. 자연스럽게 발해에 대한 정보도 늘어나고 달라진 발해의 위상을 확인하였으며, 결국 790년 사신 파견으로 이어졌다.

I. “790년 3월 일길손 백어를 북국에 사신으로 파견하였다.”⁸¹

원성왕이 파견한 사신의 관등은 일길찬이다. 760년부터 790년 사이 신라가 일본에 보낸 사신의 관등은 사찬부터 대나마 사이였다. 사신의 관등으로만 보면 오히려 일본보다 발해의 위상이 높았다. 발해가 신라에게 중요한

79 『續日本紀』(25) 淳仁天皇 天平實字 8년(764), “(七月) 甲寅 新羅使大奈麻金才伯等九十一人到着大宰博多津 遣右少弁從五位下紀朝臣牛養 授刀大尉外從五位下粟田朝臣道麻呂等問其由緒 金才伯等言曰 唐國勅使韓朝彩自渤海來云 送日本國僧戒融 令達本鄉已畢 若平安歸鄉者 當有報信 而至于今日 寂無來音 …”.

80 한편, 『三國遺事』紀異(1) 靺鞨渤海 조에는 “新羅古記云 高麗舊將柞榮姓大氏 聚殘兵 立國於大伯山南 國號渤海.”이라고 하여 “渤海”를 정식 국호로 명기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다만, 『신라고기』가 어느 시기에 편찬되었는지 알 수 없는 만큼 이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겠다.

81 『三國史記』新羅本紀 元聖王 6년(790), “三月 以一吉浪伯魚使北國”.

외교 대상으로 인식되었음을 보여준다. 원성왕이 발해에 사신을 파견한 배경으로 신라가 처한 정치 불안이나 국제적 고립 등 안팎의 문제를 주목하기도 한다.⁸² 그런데 원성왕이 즉위 이후 취한 정치적 시책이 전제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음을⁸³ 고려하면 이웃한 발해는 좋은 사례가 되었을 듯하다.

위 사료에서 주목되는 것은 발해를 ‘북국’이라고 표현한 사실이다. 신라인들이 당시 발해를 ‘북국’이라고 불렀다는 데는 대체로 의견을 같이한다.⁸⁴ 북국은 신라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지리적으로 북쪽에 있어 북국이라고 한 만큼 신라와 발해가 대등하게 남과 북에 서로 존재한 나라임을 인정한 것이다.⁸⁵ 즉, 신라는 차등적 인국민식을 넘어 발해를 대등한 이웃나라로 다시 보게 된 것이다. 이렇듯 신라의 대발해 인식에 변화가 일어난 데는 발해와 직간접적으로 교류함으로써 발해의 국제적 위상을 확인하고 자주성에 대한 자극을 받았기 때문이다.

82 임상선, 「渤海의 遷都에 대한 考察」, 『청계사학』 제5집(1988), 23쪽; 한규철, 앞의 책(1994), 109~115쪽.

83 이기백, 『新羅政治社會史研究』(서울: 일조각, 1974), 120~121쪽.

84 濱田耕策은 ‘北國’이라고 쓴 상표문이 『崔致遠集』에 수록된 시점과 ‘북국’ 기사가 실린 『三國史記』가 고려시대에 편찬되었으므로, 고려시대의 용법으로 보고 당의 번국으로 동격이었던 신라의 북쪽에 위치한 나라라는 데서 북국이라 했다고 보았다. 濱田耕策, 앞의 책(2002), 412~413쪽. 즉, 고려시대 사람들이 최치원의 「謝不許北國居上表」라는 표제나 표현 일부를 고쳐 제목을 지었다는 것이다. 문집의 수록 시점이 중요하지만 표제를 임의로 고쳤는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더구나 『三國史記』가 고려시대 편찬되었다고 해서 그 내용이나 표현마저도 고려시대 인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하마다의 견해대로라면 『三國史記』 편찬자는 발해를 ‘북국’으로 일관되게 고쳤다고 봐야겠지만 『三國史記』에서 발해를 가리키는 표현을 보면 발해(말갈(신라본기 제8 성덕왕 32년, 백제본기 제6 의자왕), 발해(잡지 제6 백제), 말갈발해(열전3 김유신 하) 등의 표현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謝不許北國居上表」나 『三國史記』에 보이는 북국은 당시 신라의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85 조이옥은 신라 하대 들어 발해를 북국으로 지칭한 것은 상호 동족의식에 입각한 ‘남북국’이라는 시대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았다. 조이옥, 앞의 책(2001), 188~189쪽; 조이옥, 앞의 논문(2005), 164~165쪽. 한편, 張碧波와 張軍은 ‘北國’을 멸시하는 칭호로 이해했다. 張碧波·張軍, 「渤海與新羅“爭長”的背后」, 『北方文物』 59(1999), 49쪽, 53쪽.

IV. 맺음말

8세기 전반 신라는 발해를 번국이자, 북적으로 인식했다. 신라의 인식과 별개로 발해는 713년 당으로부터 책봉을 받았다. 발해는 당과 국교를 맺음으로써 대외적으로 안정을 찾았다. 내부적으로 연호를 사용했으며 동북쪽으로 말갈에 대한 정복을 단행하는 등 크게 세력을 떨쳤다. 당에는 왕족을 숙위사로 파견하며 적극적인 대당외교정책을 취했다. 그 사이 당에서 신라 사신과 발해 사신이 만나거나 숙위를 통해 교류할 여지도 늘어났다. 이러한 접촉을 통해 신라는 발해의 일련의 행보를 충분히 인식했다.

732년 발해·당 전쟁이 일어났다. 발해가 당의 등주를 공격하자, 733년 당은 신라의 전쟁 참여를 요구했다. 신라가 나섰던 데는 패강 이남에 대한 영유권을 인정받으려는 측면도 있었을 테지만, 이념적 측면에서 볼 수도 있다. 당은 신라를 군자의 나라로 인식했으며 신라도 이를 자랑스러워했다. 당은 발해를 번국으로 여겼으며 그런 번국이 공격한 사실을 용납하기 어려웠다. 신라도 발해를 토벌한다는 생각을 가졌다.

성덕왕 사후 신라의 대발해 인식에 변화가 엿보인다. 771년 조성된 성덕 대왕신종에 새겨진 명문은 발해를 북쪽 오랑캐로 치부하던 인식에서 한 발 물러나 차등을 전제한 이웃나라, 교류의 대상으로 인식했음을 보여준다. 당시 신라와 발해 사이에는 교통로가 개설되어 있어 교류의 기회가 늘어났다. 당은 755년 안록산의 난을 겪으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에 직면했지만 발해는 이를 계기로 그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 더구나 신라와 달리 안으로 연호를 사용하고 황제체제를 지향하는 등 자주적 노선을 견지해 나갔다. 신라도 친당의존적인 흐름에서 점차 대당자립의식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원성왕 대 신라는 발해를 대등한 이웃나라 ‘북국’으로 재인식하고

사신을 파견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신라 내부에 차등적인 대발해 인식이외에 대등한 '이웃'으로 보려는 인식이 하나의 흐름으로 등장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 전환은 신라·당 관계의 변화가 모색되는 상황과 더불어 신라·발해 간 교류 기회의 확대와도 무관치 않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 『東文選』, 『三國遺事』.
「聖德大王神鍾銘」.
安鼎福, 『東史綱目』.
丁若鏞, 『與猶堂全書』.
崔致遠, 『孤雲集』.
『舊唐書』, 『文苑英華』, 『三國史記』, 『新唐書』, 『玉海』, 『資治通鑑』, 『冊府元龜』, 『續日本紀』.

2. 단행본

- 권덕영, 『古代韓中外交史』. 서울: 일조각, 1997.
김종복, 『발해정치외교사』. 서울: 일지사, 2009.
박시형, 『발해사 연구를 위하여』. 서울: 천지출판, 2000.
송기호, 『渤海政治史研究』. 서울: 일조각, 1995.
송기호, 『발해 사학사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0.
신형식, 『韓國古代史의 新研究』. 서울: 일조각, 1984.
이기백, 『新羅政治社會史研究』. 서울: 일조각, 1974.
이병도(역주), 『三國遺事』(修正版). 서울: 명문당, 1992.
_____, 『三國史記』 下. 서울: 을유문화사, 1995.
조이욱, 『統一新羅의 北方進出 研究』. 서울: 서경문화사, 2001.
한규철, 『渤海의 對外關係史』. 서울: 신서원, 1994.
魏國忠·朱國忱·郝慶云, 『渤海國史』.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6.
濱田耕策, 『新羅國史の研究』. 東京: 吉川弘文館, 2002.
石井正敏, 『日本渤海關係史の研究』. 東京: 吉川弘文館, 2001.
礪波護, 『唐代政治社會史研究』. 京都: 同朋舍, 1986.
李成市, 『古代東아시아의 民族と國家』. 東京: 岩波書店, 1998.
赤羽目匡由, 『渤海王國の政治と社會』. 東京: 吉川弘文館, 2011.
酒寄雅志, 『渤海と古代の日本』. 東京: 校倉書房, 2001.
池内宏, 『滿鮮史研究』. 東京: 吉川弘文館, 1960.

朱國忱·魏國忠(著), 濱田耕策(譯), 『渤海史』. 東京: 東方書店, 1996.

3. 논문

- 구난희, 「8세기 전반 발해의 동아시아 외교와 그 성격」. 『8세기 동아시아 역사상』.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11, 369~421쪽.
- 권덕영, 「8, 9세기 '君子國'에 온 唐나라 使節」. 『新羅文化』 제25집, 2005, 93~120쪽.
- 권은주, 「渤海 前期 北方民族 關係史」.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 김강훈, 「신라 경덕왕대 백제 고지 정책의 시행과 그 배경」. 『대동문화연구』 제114호, 2021, 223~253쪽.
- 김종복, 「8세기 초 나당관계의 재개와 사신 파견」. 『진단학보』 제126호, 2016, 1~40쪽.
- 김창겸, 「新羅 國王의 皇帝的 地位」. 『新羅史學報』 제2호, 2004, 209~247쪽.
- 다나카 도시아키, 「渤海建國初期의 對新羅關係」. 『北方史論叢』 제10호, 2006, 45~74쪽.
- 문안식, 「南北國時代論의 虛像에 대하여」. 『한국고대사연구』 제19권, 2000, 223~251쪽.
- 송기호, 「발해에 대한 신라의 양면적 인식과 그 배경」. 『한국사론』 제19권, 1988, 67~103쪽.
- 신형식, 「7~10세기 新羅의 對北方政策」. 『北方史論叢』 제10호, 2006, 7~44쪽.
- 이강래, 「『三國史記』의 鞞鞫 認識: 통일기 신라인의 인식을 매개로」. 『백산학보』 제52호, 1999, 683~712쪽.
- 이기동, 「新羅 聖德王代의 政治와 社會」. 『歷史學報』 제160집, 1998, 1~18쪽.
- 이우성, 「南北國時代와 崔致遠」. 『創作과 批評』 제10권 제4호, 1975, 239~248쪽.
- 임상선, 「渤海의 遷都에 대한 考察」. 『청계사학』 제5집, 1988, 3~47쪽.
- 전덕재, 「新羅의 對外認識과 天下觀」. 『역사문화연구』 제20호, 2004, 203~247쪽.
- _____, 「8세기 신라의 대일외교와 동아시아 인식」. 『일본학연구』 제44권, 2015, 27~50쪽.
- _____, 「8-9세기 신라와 발해, 일본의 자아와 타자 인식」. 『일본학연구』 제67권, 2022, 10~44쪽.
- 조이욱, 「新羅 中代 渤海觀의 變遷과 그 意味」. 『신라문화』 제25집, 2005, 147~166쪽.
- 주보돈, 「신라의 '東京'과 그 의미」. 『대구사학』 제120권, 2015, 187~227쪽.
- 최희준, 「7세기 후반 신라의 영접의례 구성」. 『신라문화』 제59집, 2021, 85~106쪽.

- 하일식, 「당 중심의 세계질서와 신라인의 자기인식」, 『역사와 현실』 제37호, 2000, 74~98쪽.
- 한규철, 「新羅와 渤海의 政治的 交渉過程」, 『한국사연구』 제43집, 1983, 131~155쪽.
- 古畑徹, 「七世紀末から八世紀初にかけての新羅・唐關係」, 『朝鮮學報』 107, 1983, 1~73쪽.
- _____, 「日渤海交渉開始期の東アジア情勢: 渤海對日交通開始要因の再検討」, 『朝鮮史研究會論文集』 23, 1986, 85~114쪽.
- _____, 「靺鞨・渤海はなぜ「北狄」なのか」, 『東方學』 140, 2020, 41~58쪽.
- 谷川道雄, 「武后朝末年より玄宗朝初年にいたる政争について」, 『東洋史研究』 14-4, 1956, 295~318쪽.
- 金子修一, 「唐朝より見た渤海の名分的位置付けについて」, 『東アジア史における國家と地域』, 東京: 刀水書房, 1999, 402~424쪽.
- 早乙女雅博, 「渤海と高句麗」, 『日本と渤海の古代史』, 東京: 山川出版社, 2003, 226~233쪽.
-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延邊朝鮮族自治州 文物管理委員會辦公室, 「吉林和龍市龍海渤海王室墓葬發掘簡報」, 『考古』 2009-6, 2009, 23~39쪽.
- 盧偉・蘇亮, 「渤海國與新羅的長期對峙關係略論」, 『牡丹江師範學院學報(哲社版)』 196, 2016, 82~85쪽.
- 馬一虹, 「渤海與後東突厥汗國的關係」, 『民族研究』 2007-1, 2007, 57~66쪽.
- 孫玉良, 「大祚榮附新羅考辨」, 『社會科學戰線』 2011-2, 2011, 113~115쪽.
- 張碧波・張軍, 「渤海與新羅“爭長”的背后」, 『北方文物』 59, 1999, 46~54쪽.

국문초록

이 글에서는 8세기 신라의 발해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그 배경을 살펴보았다. 8세기 전반 신라는 발해를 번국(藩國)이자, 북적(北狄)으로 인식했다. 신라의 인식과 별개로 발해는 713년 당과 국교를 맺었다. 발해는 밖으로 당과 적극적인 교류를 이어나갔으며 말갈에 대한 정복을 단행하였다. 안으로는 연호를 사용하는 등 신라가 인식하는 번국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이어나갔다.

732년 발해·당 전쟁이 일어났다. 733년 당은 신라에 참전을 요구했다. 신라가 전쟁에 참여한 데는 패강 이남에 대한 영유권을 인정받으려는 측면도 있었지만, 발해를 토벌한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었다.

그런 가운데 당이 755년 안록산의 난을 겪으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졌다. 발해 문왕은 이를 계기로 책봉호가 진봉되었을 뿐 아니라 그 위상도 높아졌다. 더구나 연호를 쓰며 황제체제를 지향하는 등 자주적 노선을 견지해 나갔다. 신라도 친당의존적인 흐름 한편에서 점차 대당자립의식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원성왕 대 신라는 발해를 '북국(北國)'으로 재인식하고 사신을 파견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신라 내부에 차등적인 국제질서에 입각한 대발해 번국관이 이어지면서도, 한편에서는 이전에 보이지 않던 '이웃나라'라는 인식이 하나의 흐름으로 등장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인식 변화에는 당이 혼란에 빠지면서 신라·당관계의 변화가 모색되었고, 신라도 발해와 직·간접적으로 교류함으로써 발해의 위상을 확인하고 자주성에 대한 자극을 받은 것과 무관치 않다.

투고일 2022. 12. 14.

심사일 2023. 1. 22.

게재 확정일 2023. 2. 15.

주제어(keywords) 발해(Balhae), 신라(Silla), 번국(藩國, a tributary state), 북적(北狄, Northern barbarians), 북국(北國, Northern country)

Abstract

The Changes in and Background of Silla's Perception of Balhae in the 8th Century: From Northern Barbarians (北狄) to Northern Country (北國)

Kim, Jinhan

This study examined the changes in Silla's perception of Balhae in the 8th century and the underlying background for them. In the first half of the 8th century, Silla recognized Balhae as a tributary state and regarded them as northern barbarians. Regardless of Silla's recognition, Balhae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 Tang (唐) dynasty in 713. Balhae traded actively with the Tang dynasty and not only subjugated the Malgal forces, but also continued to take independent steps, such as using era names and reign titles.

War broke out between Balhae and the Tang dynasty in 732. In 733, the Tang dynasty sent an envoy to Silla, demanding that they join the war. Silla participated in suppressing Balhae, which they considered a tributary state.

The Tang dynasty fell into disorder in 755 when it suffered the An-shih Rebellion. Consequently, King Mun's investiture title was raised and the status of Balhae increased. Moreover, domestically, Balhae implemented an emperor's system. Silla also gradually began to show independence from the Tang dynasty.

During the reign of King Wonseong (元聖王), Silla sent an envoy to Balhae. As a result of this, apart from the perception of Balhae as a tributary state based on a differential international order, a new perception of Balhae as a "neighboring country" located in the north, which did not exist before, emerged. Silla's perception changed not only because it confirmed the international status of Balhae through exchanges with it, but also because of an internal awareness of independence.

